

넓고 비좁은 '장흥 예양교' 재가설 급하다

토요시장 개장 후 하루 1,000여대 차량 몰려

교통 체증 혼잡 ...동·서부 균형발전도 저해

정남진 토요시장 인근에 위치한 장흥읍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예양교'(일명 장마구니 다리)가 넓고 비좁아 교통체증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재가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0년 3월 준공된 예양교는 지난 2006년부터 '토요시장'이 문을 열면서 몰려드는 차량과 인파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특히 토요시장의 장흥 한우 쇠고기 판매점이 전국적인 브랜드로 뜨면서 5일 장이 열리는 날과 토요일에는 하

루 1천여대의 차량과 5천여명이 예양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양교는 노폭이 6.5m에 불과한데다 5이상 차량은 통행할 수 없는 3등급로 농수산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흥군과 경찰은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동→서쪽으로 일방통행 구간을 유지하다가 최근 서→동쪽으로 변경했으나 변경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는 등 교통소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임시방편으로 이랬다



정남진 토요시장을 찾는 차량과 인파가 급증하면서 장흥읍 동서부를 연결하는 예양교의 재가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했다 하는 교통체계가 오히려 시장 활성화는 물론 동~서간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예양교를 양방향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재가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격(노폭 10m)의 다리를 가설하는데 최소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군 재정 형편상 재가설이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예양교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영암군 'AI 극복' 전국 모범사례 된 이유 있었네

주민·공무원 발빠른 초동 방역, 확산 막아

최근 전남지역 양계농가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흥역을 치른 가운데 영암군의 발빠른 방역 시스템이 전국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8일 발생 이후 50일 동안 진행된 영암지역의 AI 방역 시스템을 들여다 봤다.

▲수동적인 행정의 틀을 깨다=영암군은 지난 4월 8일 신북지역에 AI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전 공무원을 동원해 이틀만에 반경 3km 안에 있는 18농가 40만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했다.

발생 4일만인 12일 고병원성으로 판정돼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으나 영암지역은 살처분 닭, 오리

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발빠르게 대처한 것. 김재성 영암군 산림축산과장은 "신속한 초동 조치가 추가 확산을 막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민·관이 힘을 모았다=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방역작업에 주민들도 가까이 동참했다. 방역장비가 부족했던 AI 발생 초기엔 관내 한우·양돈·오리·양계협회에서 방역기 18대를 지원했고 가금류 사육농가들도 자체 소독 강화와 철저한 입·출입 통제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는데 노력했다.

▲정부·전남도 영암 방역 시스템 극찬=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난 4월 30일 전남지역 부시장·부군수

를 초청한 회의에서 방역 인건비를 요청하는 일부 시·군에 대해 "예산 지원없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책임있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 영암군을 본받으라"고 지침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수원에 열린 전국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영암군의 AI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추가확산을 막아낸 영암의 발빠른 방역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집중적인 예산 지원에도 방역 체계가 뚝한 일부 자치단체와 너무도 비교되는 선진 방역 행정"이라고 말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공산 지하 영광군 수복 전몰 용사들 뒤늦게 조영 범성면 숲쟁이 공원 묘역 정비

현충일을 맞아 6·25 당시 북한군에 점령당한 영광군 일대를 수복하려다 전멸했던 소대원들이 뒤늦게 조영을 받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1950년 영광 지역 민의원(현재의 국회의원)이던 정현조 의원의 수행비서로 있던 백익기 소위는 전쟁이 한창이던 같은 해 11월 소대원 30여명을 이끌고 광주로 향했다.

당시 인천상륙작전 이후로 전남 지역에서도 수복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범성면 등 영광군 면 지역 일대는 아직 수복이 될 뻔 상황이 었다. 백 소위는 이 때문에 경찰 병력의 지원을 요청하려고 광주에 있는 전남도 경찰국으로 향하다 북한군의 습격을 받았고, 치열한 교전 끝에 모두 전사했다.

백 소위와 소대원들은 50년이 넘어서야 국가보훈처에 의해 현충 시설이 지정됐고, 지난해 비로소 범성면 숲쟁이 공원에 묘역을 조성했다. 매년 6월이면 이곳을 찾는 유족들은 "뒤늦게나마 국가로부터 충용(忠勇)을 인정받아 다행이다"며 "6·25 당시 전몰 용사들의 행적이 묻혀버리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순천대, 공대 광양이전 강행

장만채 총장-이성웅 광양시장 양해각서 체결

광양시와 순천대가 순천대 공대 광양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성웅 광양시장과 장만채 순천대 총장은 5일 광양시청에서 순천대 공대 광양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순천대는 건물과 시설 마련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

이 시장은 "도시경쟁력을 위해 순천대 공대 광양캠퍼스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부지를 무상으로 교육과 학기술부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며 "순천대 공대 광양캠퍼스가 광양 뿐 아니라 순천과 여수 등을 아우르는 광양만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연구 중심 캠퍼스로

부지가 넓지 않아도 되고 캠퍼스가 들어서면 포스코 광양제철도 인재채용 등 여러가지로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며 "오는 2010년 광양캠퍼스 신입생 모집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합의에 따라 순천대 공대 광양캠퍼스 설립은 금달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1월 순천대 공대 이장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순천시와 사학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수협조합장 선거 돈봉투 적발

후보자가 유권자에 제공

강진군 선관위 경찰 고발

강진군 선관위가 오는 12일 실시되는 강진군 수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현장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B씨는 지난 4일 강진군 모 병원에 주차한 뒤 일원 중원 조합원 C씨를 전화로 불러내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관위 사무실로 옮겨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사무실을 나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만원을 화장실 변기물통에 숨겨놨다가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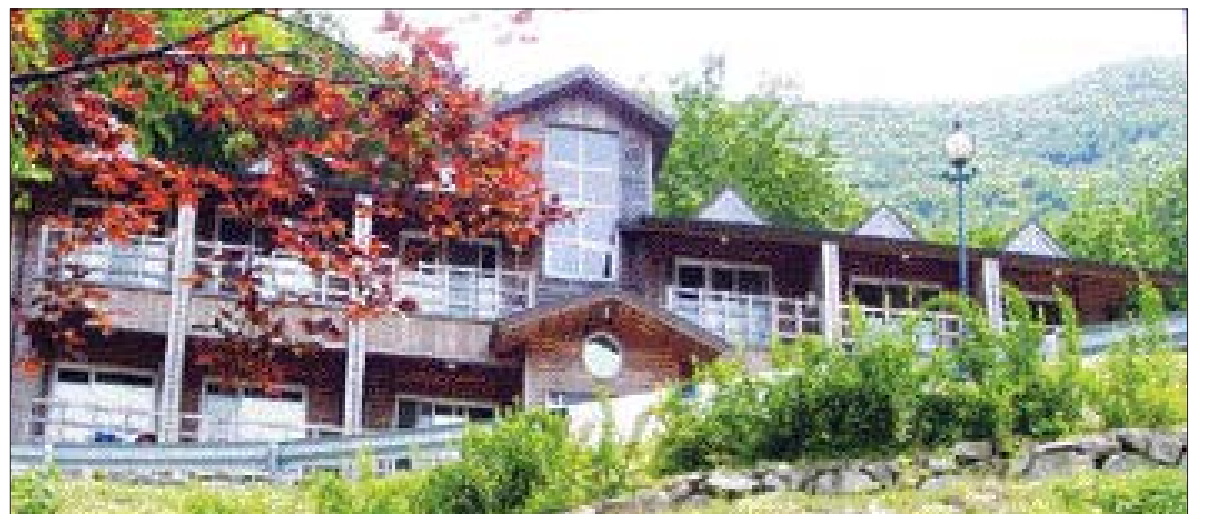
선관위는 현장에서 특정 조합원의 성명이 적색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부가 발견되는 등 이들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졌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고흥 남열해수욕장 내일 개장

7일 영남면 남열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고흥지역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남열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4일 금산면 익금해수욕장, 21일 도화 발포해수욕장·봉래 나로 도해수욕장·두원 대전해수욕장, 28일 도양 소록도해수욕장·도덕 울동해수욕장·동일 덕흥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될 예정이다.

지난해 이색적인 분위기로 피서객에 호응을 얻었던 몽골텐트도 남열해수욕장, 대전해수욕장, 익금해수욕장 등 5개소에서 1일 1동(5~6인용)에 2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고흥 팔영산 자연휴양림 손님 맞이

고흥군 도림공원 팔영산 내 자연휴양림이 단장을 마치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고흥군은 5천여만원의 들여 방갈로 리모델링과 휴양림 진입로 확장, 화장실 정비 등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 1998년 문을 연 팔영산 휴양림은 '팔영산 휴양관'을 비롯해 숲 속에 배치된 산막 등 객실 16개를 갖춰 11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이용 문의 (061-830-5430)

고흥군 도림공원 팔영산 내 자연휴양림이 단장을 마치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고흥군은 5천여만원의 들여 방갈로 리모델링과 휴양림 진입로 확장, 화장실 정비 등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 1998년 문을 연 팔영산 휴양림은 '팔영산 휴양관'을 비롯해 숲 속에 배치된 산막 등 객실 16개를 갖춰 11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이용 문의 (061-830-5430)

/고흥=주각중기자 gju@

천일염 가공식품 對日 수출 재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이산화황 자연 생성" 규명

이산화황(SO₂) 과다 검출을 이유로 일본 수출이 중단됐던 천일염 가공식품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원 인분석 연구를 통해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5일 "무안 천정수식품의 천일염 가공제품인 'QI POWER ORIGIN'에 대한 성분 분석을 벌여 제품에서 검출된 이산화황은

인위적으로 첨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천정수식품의 'QI POWER ORIGIN'은 이 회사가 연간 99톤 일본에 판매하는 주력 수출품이었으나 작년 11월 일본 요코하마 검역소의 통관 과정에서 식품 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규정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이유로 수입 중단 조치를 받았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약 3주에 걸쳐 'QI POWER ORIGIN'이 고열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대나무와 혼합·응용시 화학반응에 의해 이산화황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것이란 사실을 밝혀내고 분석 결과를 일본 검역소에 전달했다.

일본 검역소 측은 4개월에 걸쳐 이를 검토한 끝에 사용기준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해화중기자 chae@

보람상조와 함께 알 새가족을 모십니다.

특별한 혜택

새가족 모집

문의처

보람상조

광주·전남 기능장학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초슬림!!

이탈가능상 품종 직조식발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문의처: 062-573-3200, 673-4012